



다문화 혼인의 변화 추이 및 특징

김동겸 선임연구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다문화 혼인건수는 22,46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국내 다문화 혼인의 특징은 45세 이상 남성의 다문화 혼인 빈도가 높으며, 배우자의 출신 국적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임. 외국인과의 혼인이 국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향후 다문화 혼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문화 혼인이 출산율 제고와 연계되도록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함.

■ 통계청(2016)¹⁾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다문화 혼인건수²⁾는 22,462건으로 전체 혼인건수에서 7.4%를 차지함(그림 1) 참조).

● 다문화 혼인 중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 혼인 비중(62.6%)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성 간의 혼인(22.9%), 기타혼인(14.6%)³⁾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 혼인 중 귀화자의 혼인은 2012년 9.6%에서 2015년 14.6%로 증가함.

■ 우리나라의 국제결혼건수는 1990년대 농촌총각 문제해결을 위한 결혼이민 장려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그림 2) 참조).

● 최근 정부의 국제결혼 건전화 조치⁴⁾ 이후 국제결혼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비중은 2008년 22.2%에서 2015년 31.0%로 증가함.

– 동아시아 3국(한국, 일본, 대만) 모두 그 비중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임.

1) 통계청(2016, 11, 16),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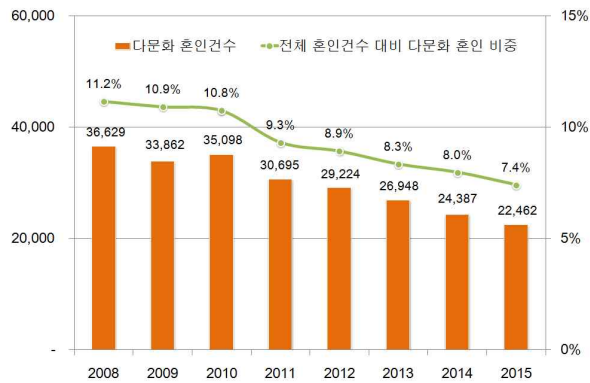
2) 다문화 혼인의 경우 귀화자를 포함하여 집계하나, 국제결혼건수는 귀화자를 제외하고 산출함에 따라 차이가 존재함.

3)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한쪽이 귀화자인 경우 또는 남녀 모두 귀화자인 경우임.

4) 2010년 정부는 무분별한 다문화 결혼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결혼 이민사증의 발급심사 강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등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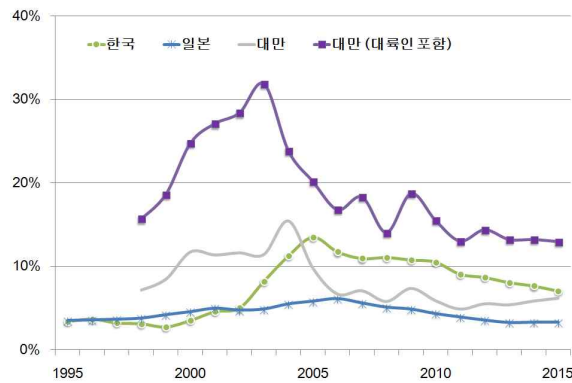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다문화 혼인건수 및 비중 추이

(단위: 건, %)



〈그림 2〉 동아시아 국가의 국제결혼 추이

(단위: 건, %)



자료: 통계청(2016), “다문화 인구통계 통계”; 통계청(2016), “인구통계 통계연보”; 厚生労働省(2016), 人口動態調査; 內政部統計處(2016), 各月人口資料.

■ 연령대별로는 남성은 중·장년층, 여성은 20대에서 다문화 혼인 빈도가 높고, 남자 연상 부부의 연령 차이는 한국인 간 혼인에 비해 높음.

- 다문화 혼인을 한 남성의 연령대별 비중은 45세 이상(22.7%), 30~34세(21.8%), 35~39세(19.1%), 40~44세(18.0%) 순임.
- 반면, 다문화 혼인을 한 여성의 연령별 분포는 25~29세(29.8%), 30~34세(21.2%), 20~24세(18.7%) 순임.
- 그 결과 다문화 혼인에서 10세 이상 차이가 나는 남자 연상 부부의 비중은 37.7%로, 한국인 간 혼인에서의 비중(3.5%)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인 간 혼인의 경우 5세 이하 남자 연상 부부의 비중은 51.4%에 달하고 있으나, 다문화 혼인의 경우에는 26.3%에 불과함.

■ 출신국적별로는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배우자는 남녀 모두에서 중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남성과 여성의 배우자 국적 분포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남성은 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동남아시아 출신의 여성과의 혼인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미국, 유럽 등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국적 보유자와의 혼인이 증가하는 추세임.⁵⁾

5) 일본 남성은 중국(38.7%), 필리핀(20.7%), 한국·북한(15.3%) 출신의 여성과 혼인하는 비중이 높으며, 여성은 한국·북한(25.4%), 미국(18.3%), 중국(12.1%) 출신자와의 혼인 비중이 높음; Constable(2005)은 여성이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신분의 남성과 결혼을 하는 현상을 상향혼(global hypergamy)이라 칭함.

〈표 1〉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의 국적 분포

(단위: %)

연도	외국인 남성의 출신 국가별 분포				외국인 여성의 출신 국가별 분포				
	중국·대만	일본	미국·캐나다	유럽·호주	중국	베트남	기타 동남아	일본	미국
2010	37.2	23.7	21.3	7.1	40.8	34.0	13.4	4.2	1.5
2015	31.4	10.9	28.4	10.3	36.3	30.1	13.0	6.0	3.9

주: 1) 한국 귀화 이전의 출신국과 외국인의 현재 국적으로 분류함.

2) 주요 유럽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를, 기타 동남아 국가는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네팔 등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2010, 2015),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재구성함.

■ 한편,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4.5%로, 다문화 혼인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혼인유형별로는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감소추세이나,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2008년 11.6%에서 2015년 15.2%로 늘어남.

〈표 2〉 국내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 출생아의 비중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중(%)	2.9	4.3	4.3	4.7	4.7	4.9	4.9	4.5

■ 다만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 등으로 다문화 혼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국제결혼이 출산율 제고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함.

- 국내체류 외국인은 2011~2015년 사이 연평균 8% 가량 늘어나고 있으며,⁶⁾ 다문화 혼인 중 귀화자의 혼인은 매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국제결혼이 출산율 제고에 연결될 수 있도록 이주여성들을 위한 사회 적응,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문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kiri](#)

6) 2016년 7월 말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 수는 2,001,828명임. 법무부는 2021년경 국내체류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5.8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